

1993 AWWA 총회 및 전시회 참가기

The repor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exhibition of 1993 AWWA

高麗大學校 工科大學

教授 崔 義 昭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Texas주의 San Antonio에서 1993년도 미국수도 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AWWA)총회와 전시회가 열렸는데 한국수도 협회는 박영필 회장을 비롯하여 양재근 이사, 노해규 및 최의소 회원, 수도관련 공무원, 기업체 회원사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앞으로 AWWA 총회와 전시회에 참석을 계획하는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수도협회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도움말을 기록하고자 한다.

총회개요

John Mannion 총장(Executive Director)의 사회로 Foster S. Burba회장의 인사와 San Antonio 시장과 Clinton 미국 대통령의 축사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Cliton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미국의 수자원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AWWA회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Burba현 회장의 인사말, 수상자 호명 및 수상의 순서로 진행되어 초청연사로 Nancy Austin 부인의 강연이 있었는데 이들의 인사말과 강연요지는 바로 우리나라 수도 기술자와 정책 입안자도 경청하여야 할 것 같아 요약하여 소개한다.

○ 회장과 초청연사의 강연내용

회장의 인사말 내용은 바로 우리 수도 기술자들의 늘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찌르는 내용이었다. 즉 지금까지 소비자를 생각지 않고 그냥 물을 공급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수도물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70년대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같은 자동차만 마구

생산하다가 몰락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끄는 양질의 수도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도기술자도 바로 IBM 이나 Sears 그리고 General Electric 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정신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소비자를 연구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물이라고 주장만 할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안전한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초청연사는 수도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수도사업을 어떻게 전개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강연이었다. 그녀는 수도물도 장사라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양질의 상품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기술자들은 우리가 공급하는 물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으며 만약 소비자들이 만족치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었다. 늘상 하듯이 과거에 우리는 물을 빨리 공급만 하려고 했지, 사실상 더이상 양질의 수질로는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는데 이것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소비자들은 수도물로 인해 백만분의 1에 해당되는 건강상의 위험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21세기를 향해 계속적인 소비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양질의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으니 사용하라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현안문제와 발표논문

본 연차 총회에서 발표된 주요 현안 문제는 미국의 안전한 음료수 관련법(Safe Drinking Water Act : SDWA)에 맞추어 “어떻게 수도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대민홍보(Public Communication), 수도물에서의 납과 구리의 제거, 급수관망에 대한 것이었다. 총회는 6월 6일에 시작되었으나 총회 이전에 16개의 분과회의(Preconference sessions)가 6월 5일에 있었으며 총회에는 55개의 기술분과회의(technical session)가 있었는데 55개의 분과를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1개 분야의 발표논문은 약 6편이므로 본 총회기간내에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계산된다.

분과별 주제	분과수
급수관망, 교차연결	7 분과
상수도 사업 관련 건설, 엔지니어링, 관리	5 "
유지관리, 대민 홍보관련	7 "
소독시의 부산물	7 "
관련법규 및 재정관련	6 "
처리장의 개선	4 "
상수도 기기	3 "
물의 재사용, 중수도, 수원부호	3 "
부식방지 및 기타	13 "
계	55 분과

미국의 SDWA에 준하여 조치가 강구되는 규제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류수 사용시의 물처리 규정(Surface Water Treatment Requirement : SWTR)- 배수지역의 오염 방지 계획과 소독시의 소독약의 농도와 접촉 시간등이 포함되어 있다.
- 소독시의 부산물 처리
- 수도물의 납과 구리농도 규제

상기 규제중 소독시의 부산물처리는 현재 시행일자가 정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전시장 및 참석자

우리나라의 무역회관 옆의 KOEX전시장 만한 넓이에 400여개사의 수도관련 제품이 전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본 총회와 전시장 참석자는 총 10,332명으로 대단한 규모였다. 25개국에서 129명의 외국인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한국, 영국, 불란서, 화란, 호주에서 교수.수도사업관계 인사. 공무원이 많이 참석하였다.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IAC)

한국 수도협회의 광영필 회장과 최의소 교수는 AWWA와 한국 수도협회의 미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IAC회의에 참석하였다.

IAC는 P. Dreyer 전 위원장에 이어 S.A.Garza가 위원장이 되었다. 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봉춘 연합기계회장이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AWWA는 일본과 연구활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Australia, 영국과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로 WHO.UNDP. IWSA(국제 상수도

협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수도협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현재 조치가 진행중이며 그 내용은 앞으로 두 기구의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 될 전망이다. 현재 AWWA회원은 55,400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01개국 1,30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 회의 참가 요령

미국 상수도 총회는 회원과 비회원간에 엄격한 구분을 두어 비회원은 15%가량 참가비가 비싸며 출판물의 경우에는 20~25%가량 더 받고 있다.

또한 총회 개최 2개월전에 등록하는 것이 당일 등록의 경우보다 20%가량 적으므로 일찍 등록한 회원과 나중에 등록한 비회원간의 비용차이는 약 35%나 된다. 현 AWWA년회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75이나 기타 외국의 경우에는 \$115(협회지, 항공요금 포함)임을 감안할때 회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개월 전에 등록하더라도 논문집을 받으려면 회원의 경우와, 비회원의 경우가 다르므로 가격의 차이가 많아 회원이 되는 편이 낫다.

AWWA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부회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AWWA총회에 비회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AWWA담당자와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당자의 이름, 직책, 연락처는 한국 수도협회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하면 알수있다.

IAC(국제교류위원회)의 간사로 있는 Mr. Keeley는 66년 경에 미국 군인으로 대구지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사이며 회원등록업무를 담당하고있다. 또한 AWWA회원이 되려며는 우선 한국 수도협회에 연락하면된다.

AWWA회원은 매월 발간되는 협회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이 되면 400여종의 AWWA발간물을 구할 수 있다. 주문시에 주의할 점은 판매가격의 40%를 항공우편요금으로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 협회와 AWWA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염가로 발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협회는 현재 AWWA와 기술교류를 위한 AGREEMENT를 초안 중이며 이러한 AGREEMENT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국 수도분야의 기술발전과 관리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